

 국토교통부	<h1>보도 설명 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10. 15. (목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담당자	·과장 이진철, 사무관 황규오, 주무관 배석은 ·☎ (044) 201-4016, 4025, 4023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추석 성수기 기간 중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었습니다.

< 보도내용 (JTBC 등, '20.10.14) >

◆ 택배 분류인력 지원한다더니...고작 350명에 불과

- 당초 정부와 업계가 전국적으로 투입을 약속한 분류 작업인력은 2,067명
- 택배 노조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분류 도우미 투입

- 추석 성수기 기간(9.21~10.5) 일일 모니터링 결과, 택배 서브터미널 분류업무 지원 인력은 당초계획(2,067명, 정부 권고(9.25))을 초과하여 일평균 3,258명(계획 대비 157.6%)이 투입되었습니다.

《 서브터미널 분류 지원인력 투입현황(출처: 통합물류협회) 》

날짜	9.21	9.22	9.23	9.24	9.25	9.26	9.28	10.5	평균
인원(명)	3,809	3,595	3,745	3,827	3,670	3,119	2,043	2,258	3,258

- 다만, 각 택배기업은 분류업무 지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각 터미널의 여건(성수기 택배물량 증가량, 분류인력 상황, 자동화 설비 도입 여부 등)을 고려하여 터미널별 투입인원을 결정하였고,

- 이에 따라, 투입된 분류 지원인력은 터미널별로 차이*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* 추석기간 물량 급증 지역, 자동화 설비(휠 소터기)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고도화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서브터미널에 분류 지원인력 우선 투입

□ 아울러, 최근 분류업무의 정의, 수행주체 및 대가 등 분류업무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*이 커지고 있는 만큼,

* (택배노조) 택배 분류(허브터미널부터 배송 직전까지)는 택배사업자 업무 (택배기업) 허브터미널부터 서브터미널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과하여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사업자 업무이나, 그 이후 최종 배송을 위하여 배송기사가 자신의 택배물량을 선별하여 택배차량에 실는 것은 택배기사 업무

○ 정부는 노사 협의를 통해 균형적 관점으로 분류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,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현장 혼란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.

□ 정부는 최근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택배 물량 급증 등으로 발생하는 택배 종사자 과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,

○ 택배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①입법조치(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, 10.8 발의), ②표준계약서 도입·보급, ③택배 분류장 및 자동화 설비 확충·개선*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* i) 택배 분류장이 배송지와 멀면 화물차 이동시간 소요로 배송시간이 길어지고,
ii) 자동화 설비가 미도입된 서브터미널은 분류업무 노동 강도가 높은 편
⇒ 택배분류장 확충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시 분류·배송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택배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개선 기대

○ 또한, 택배종사자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

※ '21년 상반기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
(고용노동부 브리핑, 10.6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물류산업과장, 물류정책과 이병민 사무관(☎044-201-4016, 3994)에게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